

“原典 오역 여과장치 필요”

이재호교수 '출판문화의 난맥상' 논문 발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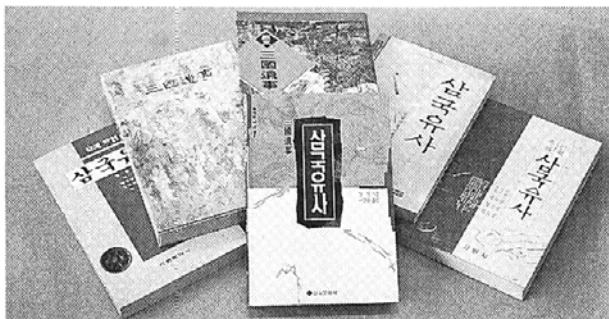
최근 삼국유사와 삼국사기 등 고전 번역물중 오역된 곳이 허다하다는 원로 학자의 지적이 화제가 되면서 원전(原典)의 오역문제가 부각되고 있다. 이를 계기로 한 해 출판물중 번역·역경물이 차지하는 비중이 20%가 넘는 불교계 역시 오역 문제를 짚어봐야 한다는 여론이다.

이재호교수는 부산대 논문 '출판문화의 난맥상'에서 원문이 난잡한 <삼국유사>는 현재 11종의 번역본에서 3백여건의 오역 사례가 발견되며 표절·도용 사례 또한 빈번하다고 지적했다. 이교수는 "고전 번역은 후손에게 민족의 정신·문화 유산을 전해주는 소중한 방법이기때 정직한 번역은 학자의 사명"이라고 논문 집필 동기를 밝히고 있다.

이교수에 따르면 삼국유사의 기이(紀異)권 제1권에 나오는 신라 진덕여왕이 당나라 고종에게 바친 태평승(太平頌)이란 시의 '동천승우시(東天乘雨施)' '이물제합장(異物濟合章)'이 오역이 심한 대표적인 경우다. '우시'와 '합장'은 중국 고전문학(易經)에 나오는 술어

로 '우시'는 대자연 조화를, '합장'은 지덕(地德)을 의미한다. 따라서 이 구절은 "세상은 대자연처럼 통치하고 만물을 땅처럼 포용한다"가 올바른 번역이라는 것. 그러나 이병도 前 서울대교수의 56년도 역주본에는 "하늘을 통령(統領)하며 고귀한 비가 내리고 만물을 다 스리매 물체마다 광채를 머금었다"로 되어있다.

북한 사회과학원 고전연구실 60년도 번역본도 같은 잘못을 범하고 있다. 이재호교수는 최근 간행된 3종의 삼국유



○시중에서 유통되는 <삼국유사>의 번역·주석본에 오역이나 표절·도용 사례가 빈번하다는 지적이 학계의 반향을 일으키고 있다.

삼국유사 3백건 오역 지적 '타산지석' 불경 번역도 오류 많아 뜻 잘못 전달

사 번역본의 구체적인 예를 통해 단순한 오역의 차원을 넘어 자신의 67년도 번역본을 표절·도용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불교계도 현재 시중에 유통되는 금강경(7권의 번역·주해본을 비교하면 전체적인 의미는 동일하게 나타나나 각 번역·주해본에서 사용된 어휘나 서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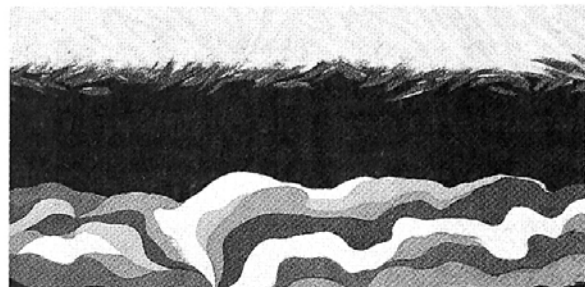
방식은 제각각이라는 지적이 있다.

스님들의 기본교재인 <초삼십자경문>의 경우 계초심학인문(誡初心學人文)의 '수원리아우(須遠離憂友)'에서 수(須)는 '모름지기'로 번역되고 있는데 현대적 어휘도 아닐 뿐더러 문맥의 의미도 흐려놓고 있다. 윤창화사장(민족사대 표)은 "명령과 결정의 의미가 있는

'수'는 '당연히' '꼭' 등으로 해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한다.

(대동아승) <신중동국여지승람> 등 고전역역총서를 발간한 민족문화추진회 이 후성 회장은 "원전 오역은 번역자의 소양 부족으로 귀결된다. 그러나 문학·번역작품의 검증은 평론의 역할이 중요한 만큼 평론 풍토가 적박한 현 학계의 구조적 문제도 간과할 수 없다"며 번역된 책들을 검증할 수 있는 학계차원의 여과 장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오종욱 기자



◇경전(經典) <대장경(大藏經)>

法數로 배우는 불교

<10>

삼계(三界) ㉑

불교는 다른 종교처럼 천상계를 이상세계로 삼지 않는다. 천상계는 삼계중 무색계와 비교할 수 있는데 불법의 경지에서 볼 때는 무색계도 허망한 세계일 뿐이다. 천상계가 아무리 영원하고 즐거운 곳이라 할지라도 언젠가는 끝이 있다고 보는 것이다.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과거 보리수 나무 밑에서 도를 성취하기전 6년동안 고행할때 모든 천상세계를 두루 경험해

산물이 곧 삼계인 것이다. 욕계, 색계, 무색계의 주인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중생들의 오염된 마음에 있는 셈이다. 입제선사가 "한마음이 탐욕을 일으키면 욕계가 되고 한마음이 성냄을 일으키면 색계가 되고 한마음이 어리석으면 무색계가 된다"고 삼계에 대해 설명한 것도 이를 두고 한 말이다.

이처럼 허망한 마음경계에서 지어낸 것이 삼계라면 삼계의 속박과 한계로부터 벗어나는 것도 마음에 달려있다는 결론을 얻을 수 있다. 마음의 미혹을 벗어나면 된다는 것이 그것이다. 아라한이나 보살,

경전 '불타는 집' '허깨비꽃' 묘사

무색계도 윤회하는 불완전한 세계 불자 궁극의 목적 '삼계 벗어나자'

보셨는데 이곳 역시 윤회를 면치 못하는 불완전한 세계였다. 그러므로 삼계는 지옥에서부터 비상비비상천에 이르기까지 인과의 법칙을 면치못한 어둠의 세계이므로 벗어나야 될 곳이지 머무를 곳이 아니다. 법화경에서는 삼계를 가리켜 불타는 집이라고 했고 원각경에서는 허공에서 일어난 허깨비꽃이라고 했다.

업의 세계요, 윤회의 세계요, 속박의 세계요, 허망한 세계가 삼계인 것이다. 그렇다면 이런 골짜기와 같은 삼계는 어디서 나타난 것인가. 화엄경이나 대승기신론 같은 곳에서는 삼계란 마음이 지어낸 세계라고 설명하고 있다. 중생들의 몽매하고 어리석은 마음에 의해서 지옥이 나타나고 천상이 나타난다는 것이다. 중생심의 그림자, 망상의

부처님과 같은 대성인의 경지에서는 삼계가 한낱 그림자 밖에 되지 않으므로 머물러야 할 수 없다. 일체의 미혹이 떠난 지혜광명의 경지인 불보살들은 삼계를 출연히 벗어나 대자유를 얻게 하려 한다. 불자를 위한 목적은 부처님처럼 삼계를 벗어나기 위해서이다. 그러려면 선업을 짓고 선정을 부지런히 닦고 부처님의 반야지혜를 얻는 선업과 선정이 필요하다. 삼계에서 노예가 되어 영원히 헤매느냐 아니면 삼계 밖으로 나와 일체의 주인이 되느냐 하는 기로에 서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삼계안의 복에 의지하지 말고 초출삼계(超出三界)의 궁극을 닦는 일이 불자의 본분이다.

이재열 <유마선원장>

세계문화유산보호위 발족 소더비 조선불화 6억 낙찰

석굴암, 팔만대장경 등 세계문화유산의 체계적 보존 관리를 위한 '세계문화유산 보호위원회'가 지난 14일 발족했다. 유네스코한국위원회(사무총장 권대준)는 이날 위원회 회의실에서 보호위원회의 임원구성 및 운영에 관한 회의를 갖고, 백승길위원장(국제박물관협의회 한국위원장)을 비롯 14명의 위원을 선임했다. 이들은 문화유산의 정기점검을 비롯 정책건의 및 자문, 보존기금마련 등의 활동을 하게 된다.

조선 명종(1562년)때의 불화가 뉴욕 소더비 경매장에서 최고가인 71만7천5백달러(수수로 포함·한화 6억3천만원)에 낙찰돼 화제가 되고 있다. 4분의 부처님이 한 화면에 그려져 '사회탱(四會堂)'으로 불리는 이 불화는 화기(畫記·불화를 그린 내력과 화공을 적은 기록)가 온전히 남아 있어 매우 귀중하다. 사회탱은 국내는 물론 중국이나 일본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귀중한 작품이다.

생명복제·문화재등 봉축 학술행사 다채

'불교 시각에서 본 생명복제' '불교유산의 보존과 진흥' 등 관심을 끄는 주제의 학술회의가 오는 5월 부처님오신날을 전후해 다양하게 열린다.

불교문화연구원(원장 권기중)은 '불교의 시각에서 본 생명복제'를 주제로 5월9일 세미나를 개최한다.

'생명복제의 정의와 현황'(이민웅 동국대교수) '유전공학의 발전과 인류의 미래'(공종원 조선일보 논설위원) '불교의 생명관'(호진스님 동국대 교수) '불교의 윤리와 생명복제'(정병조 동국대부총장) 등의 주제발표가 있다.

'97 문화유산의 해를 기념해 한국교수불자연합회(회장 류종민)는 5월24일 '불교문화유산의 보존과 진흥'을 주제로 학술회의를 연다. '한국인의 정신과 불교문화유산'(이인자 경기대교수) '유형문화유산의 보존과 진흥'(박봉준 중앙대교수) '불교문화유산 보존과 진흥을 위한 행정체계의 재정립'(황진수 한성대교수) 등이 발표될 예정이다.

이외에도 한국불교학회(회장 김영태)는 오는 5월3일 '백제고갈 수덕사와 덕숭산문의 범종 연구'를 다룬 학술회의를 마련한다.

범종 발달사 한눈에 본다

신라·고려·조선시대 178구 양식·특징 총정리

국립문화재연구원 '한국의...' 펴내

국립문화재연구소(소장 김동현)가 현존하는 범종 1백78구(口)를 집대성한 자료집 <한국의 범종>을 발간했다.

신라(11구)·고려(73구)·조선(94구) 범종 등 남한 지역에 분포된 범종을 종합적으로 소개한 최초의 자료집인 <한국의 범종>은 그동안 산발적으로 연구됐던 한국 범종의 기원과 변천사·양식 및 형태상의 특징을 비교하고 도판 탁

본 문양양식 등을 정리했다.

<한국의 범종>에 따르면 배어난 음색, 조각의 정교함과 깊은 신심이 표현된 전통 범종은 고려말 중국종을 모방하면서 형식과 제작수법이 조잡해지는 양상이 나타난다고 지적하고 있다.

<한국의 범종>은 이호관(前 국립중앙박물관 미술부장) 조유전(국립민속박물관장)씨 등이 지난 72년부터 74년까지 3년에 걸쳐 조사한 자료를 토대로 제작됐다.



이호관씨는 "<한국의 범종>에 수록된 자료를 토대로 범종에 대한 좀더 심도 깊은 연구가 이루어지고 북한 지역의 범종까지 보완해 총체적인 범종 자료집이 나오길 바란다"고 말했다.

리터러리 킷스

20세기 초 미국 불교의 특성은 승려와 사찰이 아닌 불교를 자신의 종교로 선언한 '비트세대'의 반동적 문화경향에서 두드러진다.

'리터러리 킷스'는 50·60년대 문학을 통해 냉전·핵·물질주의 등의 문화적 병폐에 반항했던 비트세대의 대표적 작가들을 소개하고 비트세대의 특징과 주요활동 지역 등의 정보를 제공한다. 킷스(kits)란 '반항·거부·불평' 등의 도발적 의미를 갖는다.

이 사이트에서 소개하는 작가중 <진리의 법>(The Dharma Bums)을 쓴 J.케로악과 <대소(大笑)>(Howl: Sunflower Sutra)에서 해바라기의 모습을 불교경전으로 삼았던 A.킨스버그 등은 냉전 속에서 극대화된 소비문화와 핵공포의 압박을 받던 미국 젊은이



서부해안 지대를 '베이 에어리어(Bay Area)'로 통칭하는데 동양학 관련 출판과 문화행사가 가장 빈번히 열리는 곳으로 꼽힌다. '리터러리 킷스'의 주소는 <http://www.charm.net/~brooklyn/>이다. <육>



中國 삼중스님과 함께 하는 구화산·황산 성지순례 대장정

상해홍구공원(윤봉길의사의 의거 현장)천도대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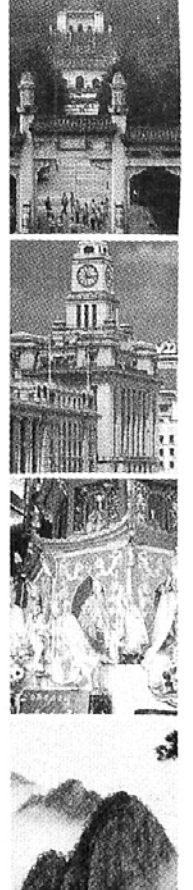
삼보 귀의 하옵시고 중국 4대 명산인 구화산에 위치한 육신보살 지장왕보살 천전대법회(항공5일간)에 박삼중 큰스님과 함께 하는 뜻 깊은 순례와 계림보다 더 빼어난 절경을 자랑하는 3괴(괴수, 괴암, 운해)를 지닌 황산에서의 일출을 볼자여러분과 함께 하고자 합니다. 병풍처럼 이어지는 곳곳에서의 산수절경에서 온화한 불심과 어울려지는 감홍이 구화산과 황산으로 이어지는 중국에서의 순례행사는 영원히 잊을 수 없는 불자들의 가슴속에 기억 될 것입니다. 부디 널리 알리어 큰스님의 뜻을 기리기 위한 많은 동참이 있으시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여행지: 중국, 상해, 항주, 구화산, 황산, 남경PTY(4박5일)
 · 여행기간 : 1997년 4월 12일~4월 16일(4박5일)
 · 여행경비 : ₩780,000 (동참금 ₩50,000별도) (여권비자 수속비 제외)
 · 참가인원 : 200명
 · 신청마감 : 1997년 4월 5일까지

문의및 접수처
 서울 자비사 02-593-2883 박보살님
 부산 자비사 051-467-2366 장진용 사무장
 부산(주)일주항공여행사 051-467-0888

일자	도시명	항공편	시간	주요 행사 일정
제1일	부산	KE 6495	08:40	부산 김해공항 국제선청사 1층 약국앞 전경 상해항만·상해도착후 임시정부 청사, 관광호텔 투숙
4/12 (토)	상해		10:45	HOTEL: 백화 호텔
제2일	황산	전용버스	전일	호텔조식후 황산항만 윤공사 천도봉 불장봉등 관광 호텔투숙 및 휴식
4/13 (일)	황산			HOTEL: 북해빈관 호텔
제3일	구화산	전용버스	전일	일출 감상 및 온천등 관광 중식후 황산출발 - 구화산 항만 구화산도착후 호텔투숙
4/14 (월)	구화산			HOTEL: 위풍 호텔
제4일	구화산경해	전용버스	전일	화성사, 쌍계사, 예거사등 관광 - 남경항만 남경도착후 현무호공원, 영공사 등 관광 상해항만, 상해도착후 호텔투숙
4/15 (화)	구화산경해			HOTEL: 관생 호텔
제5일	상해	KE 6505	12:40	홍구(노신)공원등 시내관광
4/16 (수)	상해		15:20	부산항만 부산 김해공항 도착후 대으로 안녕히

※ 상기 일정은 항공기 및 현지시정에 의하여 다소 변경 될 수도 있습니다.



참가신청서

접수번호 : No. _____

행사명	중국 성지순례 구화산 지장왕 김교각스님 천전대법회(항공5일간)		
성한글	주민등록번호		
명한문	여권번호		
주소			
전화번호	자택 :	직장 :	
여권유무	유 · 무		
여행요금	₩780,000		
동참금	₩50,000	신청금	₩100,000
온라인	서울은행 43304-4451405	예금주	
구좌번호	국민은행 102-01-0727-22	자비사	
	부산은행 089-01-018461-6		

※ 중국 구화산 성지순례의 목적이나 그 뜻을 충분히 이해하고 기리기 위해 행사 주체의 한 일원으로서 품위를 손상시키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합니다. (본 신청서는 해외여행 약관에 따를 것이며, 상세한 일정과 조건등을 확인하신 후 신청바랍니다.)

상기와 같이 신청합니다.
 1997년 월 일
 신청인 (인)

지정여행사
 (주)일주항공여행사 귀중